

카지노 리조트 3곳 선정맨 여수 경도 유력

문체부, 연내 2곳 추가...롯데·코오롱 등 34곳 경쟁 이달 말 유치 여부 윤곽...국토 균형발전 효과 '주목'

늦어도 이달 말까지 여수 경도 레저관광 등이 참여한 카지노 복합리조트(IR·Integrated Resort) 선정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연내 추가로 2곳 선정될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 입찰에는 대기업인 롯데·코오롱을 비롯해 공기업인 GKL·수협중앙회·수자원공사 등 국내공기업 등 국내외 기업 34곳이 출사표를 던지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몰, 컨벤션, 전시시설, 공연장, 테마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을 융합해 비즈니스·가족관광·레저·엔터테인먼트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시설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중 카지노 복합리조트 제안서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고 12월께 사업자 2곳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3곳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달에는 사업자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사업자 후보지역과 후보자 수를 공개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인천 1곳, 서울 1곳, 전남 여수 1곳 등 정도로 공표된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최종 승자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즉, 전남 1곳이 포함되면 경도 복합리조트가 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 한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1곳 등 모두 17곳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은 2010년

1조원을 넘어선 후 2011년 1조1256억원, 2012년 1조2510억원, 2013년 1조3685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카지노업종이 활황세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이 새로 생길 경우 시너지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규 카지노 복합리조트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천 영종도에는 이미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2건이 확정돼 추진되고 있다. 파라디이스세가사미가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파라디이스시티'가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서 착공됐다.

미국의 유명 카지노업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도 2018년까지 영종도 미단시티에 7억9400만달러 규모의 카지노를 건설하기로 하고 카지노 면허를 받아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종도에 복합리조트 1~2곳 추가로 신설되면 '카지노 복합단지 밀집현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인 전망속에서도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우선 영종도에 조성될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수

익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영종도에만 카지노가 집중된다면 공급과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카지노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롯데그룹과 말레이시아의 합작법인인 겐팅은 부산 북항을, 코오롱글로벌은 강원 춘천을, 수협중앙회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여수 경도레저관광과 중국 평강도가 춘 등 컨소시엄 3곳은 전남 여수 경도 등을 후보지로 내세워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여수를 입지로 선택한 업체들은 호남지역에 카지노가 전혀 없는 만큼 지역균형 발전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국회의원을 "심학봉 제명하라" 등을 정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여성 의원들이 10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 심학봉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

“경남, 해상경계 대법원 판결 무시 안된다”

전남 수산인단체 기자회견

전남지역 어업인들이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일부 경남 어민과 정치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수협 조합장협의회 등 전남지역 15개 수산인단체는 10일 여수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1일 대법원은 '전남과 경남 간의 해상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무시하고 억지주장을 펴는 '경남 연근해어업조합구역 대책위원회'와 일부 지역 정치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남 어민 500여명은 최근 남해와 여수 사이 해역에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해 해상 시위를 벌였으며, 경남도와 협력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어업인들은 "전남 어업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집단행동이나 정치권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판결을 무력화하고 범지구가의 근간을 흔드는 억지주장을 하는 세력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생존권 사수를 위해 그 어떤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수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해상 경계 침범 등 불법 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불법 조업 적발이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경남 기선권원망의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침범과 관련한 수산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정감사를 중앙정부 건의 기회로 삼자”

이낙연 지사 정책 준비 지시

이낙연(사진) 전남지사는 10일 "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를 향해 건의해야 할 정책 대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국정감사는 도정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앙정부를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올해는 당게는 2~3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적 경향이 강하지만 중앙정부가 먼저라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를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올해 국회의 예산 심의 일정도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철이 끝나가는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방문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회, 새정치 박기춘 체포동의안 접수

박, 탈당·총선 불출마 선언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의원은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

새누리당은 일단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13일 본

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도 이 같은 원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게 공식적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속내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검찰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데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는 물론 탈당까지 하면서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동정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의원의 탈당으로 새정치연합의 의석수는 130석에서 129석으로 줄어들었고 무소속 의원은 4명에서 5명(정의화 의장 포함)으로 늘었다. 이밖에 새누리당 159석, 정의당 5석 등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개발공사 오동재 등 숙박시설 매각 공고

내달 7일까지 '온비드'서 입찰

전남개발공사가 직영중인 숙박시설을 모두 매물로 내놓았다. 양지문 사장 취임 이후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근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 구조 개혁 방안으로 권고한 전남개발공사와 개발공사의 자회사 '전남관광'의 통폐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남개발공사는 한옥호텔인 오동재(여수)와 영산재(영암)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동재와 영산재에 대한 입찰은 다음달 7일까지 온라인 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진행된다.

오동재는 2만7601㎡ 부지에 사랑채 본관을 포함한 총 7개동 40객실 규모다. 전

통훈레칭, 한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앞서 2012년 4월에 개관해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영산재는 1만8579㎡ 부지에 총 7개동 21객실 규모로 전통문화체험관, 전통훈레칭, 연회장, 한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2011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매각 예정가격은 오동재 271억원, 영산재 116억원으로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이다. 대금납부방법은 계약 후 60일 이내 대금을 완납하거나 1년간 3회 분할납부 할 수도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달 10일 해남평광호텔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을 통해 66억원에 매각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새정치 광주시장 사무처장 박근용·전남도당 사무처장 주태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신임 사무처장에 박근용(50) 전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전남도당 신임 사무처장에는 주태문(51) 전 민주정책연구위원이 임명됐다.

박 신임 사무처장은 화순 출신으로, 지난 98년 새정치국민회의 공채 1기로 정치에 입문해 중앙당 정책분석국, 기획조정국, 민주정책연구원 전략연구실, 국회 원내기획실(정책연구위원) 등 중앙당 주요 요직을 거쳤다.

주 신임 처장은 무안 출신으로,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정치에 입문해 새천년민주당 정책전문위원, 직능국장,



통합민주당 조직국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마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